

신안에 왕새우 배합사료 공장 들어선다

해수부 예산 확보...60억원 투입
연 1000t 생산...어가 경영 도움
3월 15일까지 민간 사업자 선정



왕새우 최대 주산지인 신안군에 오는 2026년까지 첫 전용 배합사료 공장이 생긴다. 신안군 팔금면에 있는 왕새우 양식장 전경. <신안군 제공>

왕새우 최대 주산지인 신안군이 오는 2026년까지 연간 1000t의 전용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신안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친환경 왕새우 전용 배합사료를 개발·생산할 수 있는 공장 건립 사업비 60억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비중으로 나뉜다.

신안군은 전국 왕새우 생산량의 52%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이다. 전남에서는 81%의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268가구가 836ha의 양식장에서 3100t의 왕새우(500억원 상당)를 생산했다. 신안지역에서 왕새우 어가가 가장 많은 곳은 압해읍으로, 47가구가 활동하고 있다.

왕새우 최대 주산지인 신안은 해마다 1만여 양의 사료를 사용했지만, 새우 전용 사료공장은 없었다.

신안지역 사료 사용량은 전국의 57% 비중을 차지한다.

사료 비용은 약 200억원으로, 양식 어가들의 경영비 30% 비중을 달한다.

배합사료 가격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지난 2022년부터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달 기준 새우 양식 사료 20kg 한 포대 가격은 4만3000원으로, 예년보다 20%가량 오른 가격이다.

신안군은 친환경 왕새우 배합사료 공장 생산 목표를 연간 1000t으로 잡았다. 지역에 새우 전용 사료공장이 생기면서 어가들의 부담을 덜 것으로 신안군 측은 기대했다.

사료 공장과 저장 시설은 오는 2026년까지 건축면적 900평(2975㎡)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

신안군은 지난 2020년부터 지속해서 중앙정부에 사료 공장 건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해왔다.

오는 3월15일까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 유치 신청을 받아 공장 건립 대상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일원에는 건립비 400억원 규모 새우 종자 전용 시설(스마트 양식 클러스터)과 60억원 규모 왕새우 산지 거점 유통센터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왕새우 전용 사료 공급 기반 구축은 새우 종자 전용 시설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와 왕새우 산지 거점 유통센터와 연계해 왕새우 산업 집적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왕새우 거점 단지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 취약계층 마음치유 받으세요

66명 대상 연말까지 6차례 진행

진도군 보건소가 취약계층 66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마음건강 치유'를 펼친다.

치유 대상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65세 이상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등이다.

진료 검진은 장흥통합의료병원 전남마음건강치유센터에서 진행된다.

이곳에서는 건강 검진과 통합의학 치료, 우드랜드 치유요법 등 다양한 맞춤형 치유가 진행된다.

'마음건강 치유'는 올해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유형별로 '마음의 온기(기초생활수급자)' '마

음은 청춘'(65세 이상 어르신) '비상구'(청소년) 등으로 이름 지은 스트레스-건강 검진이 이뤄진다.

장흥통합의료병원까지는 전용 버스로 이동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61-540-69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희 진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전문적인 심리지원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의 마음건강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해남군 소상공인 경영지원 팔 걷었다

카드 수수료 26만원·홍보비 40만원

해남군이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온라인마케팅 홍보비 지원사업, 배달수수료 지원사업,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해남사랑상품권 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제수수료를 지원한다. 매출액 규모별로 최소 18만원

부터 최대 26만원까지 업체별 연 1회 지원한다.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를 지출한 소상공인에게

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5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은 배달대행업체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 자부담에 대해 업체별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 가입 후 납입하는 보험료 자부담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종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 보상을 돕는다.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은 매장 내 디지털 기기(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스마트 오더, 디지털 메뉴보드 등)도입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기 도입비를 공급가격의 8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비용 지원

보험료 50% 최대 100만원 한도

목포시가 지역 중소기업이 외상 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금의 80%까지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 비용을 지원한다.

목포시는 이달부터 매출채권 보험료 50%(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수탁해 운영하는 공적 보험제도이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또 가입된 매출처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주는 신용관리기능도 있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등 매출채권보험 보험계약 대상 업종 기업이다.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목포시는 매출채권 보험료의 50%를 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목포지역 중소기업은 목포시와 신보의 협약에 따른 50% 지원과 신한은행의 2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의 최대 70%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보 홈페이지(kodit.co.kr)나 광주신용보험센터(062-607-926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선정

영광군 기초수급·차상위계층

2909가구 농식품 이용권 지원

영광군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8억2800만원을 확보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지역 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CU, GS 25, 로컬푸드직매장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 채소, 과일 등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농식품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광군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6개월간)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2909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 ▲2인 가구 5만7000원 ▲3인 가구 6만9000원 등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지난해 말 '무안 꿈의 오케스트라'가 국회에서 공연한 모습. <무안군 제공>

무안 아동·청소년 '꿈의 오케스트라' 5월 공연

무안지역 아동·청소년 60여 명이 참여하는 '무안 꿈의 오케스트라'가 오는 5월 무대를 펼친다.

무안군은 전국 동시 공연형 프로젝트 '꿈의 향연'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오는 5월 무안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꿈의 향연'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다. 올해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 거점기관 37곳이 참여해 5월 세계문화예술 교육주간을 맞아 한 달간 무대를 올린다.

무안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 아동·청소년 60여 명의 단원을 포함해 70여 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에는 서울 국회 연주회를 포함해 6개의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기획 사업을 통해 단원들의 역량 강화와 예술적 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공연에 많은 군민과 관객들이 참석해 연주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